

2025 문화탐방 보고서

프랑스 속 작은 프랑스어권
: 다문화 공존의 발자취

2026. 02. 02

팀명 : Harmonie a Trois

이름 : 김유은, 박보미, 안소희

탐방 기간 : 2025. 12. 29. ~ 2026. 01. 14

I. 연구개요

1. 연구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프랑스언어와사회' 수업을 통해 형성된 관심에서 출발한다. 수업 시간에 프랑스 사회는 단일한 민족과 문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이민의 역사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이민을 받아들여 온 국가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에 정착해 왔다는 점은 프랑스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수업에서는 프랑스의 다문화성이 단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19세기 이후 산업화,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 두 차례의 세계대전, 탈식민화와 같은 역사적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적 결과라는 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랑스는 여러 지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 사회는 다민족, 다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인 네 명 중 한 명이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다문화가 프랑스 사회의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든 구조적 현실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본팀은 실제 거리와 도시, 대중교통, 학교, 시장, 종교 공간, 문화 행사 등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 속에서 다문화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이해하고 싶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찰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처럼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에 개인적으로 프랑스 문화와 사회에 가진 관심이 결합되면서 프랑스의 다문화성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를 '관광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그 형성과 유지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과 같은 유명 관광 명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표면적인 관광 경험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가 어떻게 다양한 이민자 집단을 받아들이며 사회를 형성해 왔는지, 또 오늘날 그 다문화성이 도시와 일상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를 단순한 여행지로 소비하지 않고, 오랜 이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함으로써,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과 연결하고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시각을 심화, 확장하는 데 있다.

II. 연구계획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대표 도시인 파리, 리옹, 마르세유를 탐방 도시로 선정하였다. 이 세 도시는 각각 정치.문화의 중심, 생활 문화와 미식의 중심, 이민과 지중해 교류의 중심이라는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프랑스 사회 속 다문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 파리

1) 파리 이민사 박물관

파리 이민사 박물관 방문을 통해 프랑스 이민의 역사와 국가 차원의 다문화 담론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기억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전시 자료를 중심으로 이민자 집단의 변화, 출신 지역, 사회적 위치 등을 분석하며 프랑스가 이민을 어떤 서사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파리 라빌레트(La Villette) - 필하모니 드 파리

필하모니 드 파리 악기 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적 요소를 조사한다. 서구 중심의 클래식 악기 공간, 다양한 비서구권 악기 공간을 통해 예술을 통한 문화 교류의 양상을 체험한다.

2. 리옹

1) 리옹 크루아루스(Croix-Rousse) 시장

미식의 도시 리옹에서 크루아루스 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식재료와 상점 구성을 통해 다문화적 음식문화가 도시의 일상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탐구한다.

2) 리옹에서 알아보는 쿠스쿠스 정착 과정

마그레브 지역의 전통 요리인 쿠스쿠스가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게 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을 조사한다. 프랑스에 정착한 쿠스쿠스와 전통 쿠스쿠스를 비교하여 재료, 조리 방식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민 음식이 현지화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빌레르반(Villeurbanne) - 그라뜨 씨엘(Gratte-Ciel)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형성한 대표적 다문화 지역인 빌레르반을 방문하여 현재의 아파트 형태와 유사한 그라뜨 씨엘 건축 양식을 탐방한다. 해당 건축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목적을 분석한다.

3) 마르세유

1) 마르세유 구항구(Vieux-Port)

지중해 무역과 이민의 중심지였던 마르세유의 구항구를 방문하여 직접 체험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던 항구 도시의 역사적 특성을 탐구하고 항구 공간이 이민자 유입과 정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다.

2) 마르세유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Basilique Notre-Dame de la Garde)

마르세유의 상징적 건축물인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을 방문하여 건축 양식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를 탐구한다. 이 성당은 신비잔틴(Neo-Byzantine) 양식으로 건립되어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전통이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가 교차해 온 지중해 연안 도시 마르세유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다. 본 탐방을 통해 종교 건축이 단일한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혼합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내용

1. 파리

1-1). 이민사 박물관

파리의 이민사 박물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오랜 이민 역사와 흐름을 살펴 보았다. 프랑스 역사에서 이민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핵심이다. 프랑스의 이민 역사는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산업화의 등장과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을 유입하였다. 그 뒤,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재건 사업을 위해 동유럽과 아프리카 쪽 식민지 출신의 노동자들을 유입하였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알제리의 독립과 함께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이 급증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현재 프랑스 이민자 비중의 다수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프랑스 인구의 11% 가량이 이민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 12구 포트 도레(Palais de la Porte Dorée)에 위치한 이민사 박물관은 유럽 최초의 이민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이자 프랑스 최초의 국립 박물관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이민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한다. 이민사 박물관에 들어서면 단순히 이민의 역사뿐만 아니라 식민지화를 통한 노예 제도, 노예들을 옮길 때 사용했던 배 모형 등 역사의 어두운 면까지 가감없이 담고 있어 심층적으로 이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권력 계층의 초상화와 조각상과 더불어 당시의 기사들을 보관해 놓아 동시대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이민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순행적으로 인종별 이민의 역사를 보여주며 많은 이주민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랑스인들과 불협화음을 가졌음을 알린다.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시위와 인권 운동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이주의 역사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다양한 종교와 의식주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문화 중 하나인 음악을 중점으로 청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생동감 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으며 앞으로 계속 될 프랑스 이민의 미래를 그리며 전시는 마무리된다.





1-2). 라빌레트(La Villette) - 필하모니 드 파리

음악은 특정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산물로 악기와 음악 양식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리에 있는 두 번째 문화 탐방 장소인 필하모니 드 파리 (Philharmonie de Paris) 는 음악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필하모니 드 파리는 공연을 위한 콘서트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인접한 전시 공간 또한 음악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시설이다. 전시 공간에서는 시대별로 변화해 온 다양한 악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형태의 피아노는 오늘날의 단순하고 정제된 외형과 달리 화려한 장식과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크기 또한 매우 거대했다. 이와 함께 사람 키에 달할 정도로 큰 관악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등장한 일렉트릭 기타와 EDM 디제잉 장비와 같은 전자 악기까지 전시되어 있어 음악 기술의 발전과 시간적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초상화가 함께 전시되어 있어, 음악이 만들어지고 연주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필하모니 드 파리 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 및 유럽의 악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희귀한 전통 악기들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음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인류 전반에 걸쳐 공유

되고 교류되어 온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 구성은 우리와 같이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람객에게도 충분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한다.

전시된 악기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전통 타악기인 용고(龍鼓)였다. 외관부터 친숙한 용고는 북의 앞면에 용 문양이 그려진 것이 특징이며, 어깨에 메고 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이다. 주로 군대 행진 음악인 대취타나 군악 행사에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의 '행고'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에 용고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시 설명에 따르면, 해당 용고는 나무, 금속, 종이 등의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19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프랑스 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프랑스의 시점에서 바라본 조선의 국제적 위치에 대한 간략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어 세밀한 관람에 도움이 되었다.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에 외교 사절을 적극적으로 파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용고는 단순한 음악 유물이 아니라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정세 속 위치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필하모니 드 파리에선 용고 외에도 거문고, 해금, 북 등 한국의 다른 전통 악기들 역시 소장되어 있다. 이렇듯, 필하모니 드 파리의 전시는 유럽 중심의 음악사뿐만 아니라, 비유럽권 국가의 음악과 악기를 함께 보관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와 역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필하모니 드 파리 전시는 악기의 발전 과정을 넘어, 각 시대와 국가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한국 전통 악기 용고의 전시는 1900년대 초 국제 정세 속 대한제국의 외교적 위치와 프랑스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2. 리옹

2-1) . 리옹 크루아루스(Croix-Rousse) 시장

'미식의 도시'로 알려진 프랑스 리옹의 이면에는 다양한 이주민의 역사와 문화가 층층이 쌓여 있다. 그 중에서도 크루아루스(Croix-Rousse) 시장은 과거 실크 노동자(Canuts, 까뉼)들의 터전이었던 역사적 장소인 동시에, 오늘날 리옹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 중 하나다. 까뉼들의 저항 정신이 깃든 이곳은 이제 매일 아침 거대한 노천 시장으로 변모한다.

크루아루스 언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선다. 이곳에서는 프랑스 전통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중해,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기원을 가진 식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프랑스 전통 로컬 치즈와 함께 인근 국가의 다양한 유제품들은 공존하며 유럽 내 식문화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또한 열대 과일부터 유럽 본토의 제철 채소까지, 식재료의 다양성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음식은 메르게즈(Merguez)다. 메르게즈는 양고기와 소고기에 커민, 하리사 소스 등을 섞어 만든 북아프리카(마그레브 지역)에서 유래한 매콤한 양념의 소시지이다. 이 식재료는 현재 리옹 시민들의 일상적인 식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프랑스 노점 음식과 가정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피에누아르(Pieds-Noirs)'의 역사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알제리 독립 이후 프랑스로 귀환한 피에누아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즐기던 메르게즈를 프랑스 본토의 바비큐 문화와 접목

시켰다. 즉, 메르게즈는 단순히 이주민에 의해 유입된 외래 음식을 넘어, 프랑스 귀환자들에 의해 이식되고 대중화된 유산이자 프랑스 본토와 북아프리카 식문화가 결합된 실증적 사례이다. 이는 이민자 문화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류 문화인 프랑스 사회에 어떻게 동화되고 수용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장 방문객들은 메르게즈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경험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미학적 즐거움이 다문화적 이해로 확장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크루아루스 시장은 단순한 식재료의 유통망이 아니라, 리옹의 다문화적 정체성이 매일 새롭게 생산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치즈부터 메르게즈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마주하는 식재료의 다양성은 프랑스 사회가 추구해야 할 상호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시각화한다. 특히 메르게즈와 같은 음식은 이주민의 문화가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프랑스 대중문화의 중심부로 들어와 새로운 미식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2) . 리옹에서 알아보는 쿠스쿠스(Couscous) 정착 과정

쿠스쿠스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지역의 전통 요리이나,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 상위권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대중적인 요리가 되었다. 본 탐방에서는 리옹 현지의 식당을 방문하여 쿠스쿠스를 직접 시식해보며, 쿠스쿠스가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게 된 사회적 맥락, 현지화된 쿠스쿠스와 전통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쿠스쿠스가 프랑스 사회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 지배와 1960년대 알제리 독립 전쟁 이후 발생한 대규모 이주(피에누아르와 마그레브 이주민)는 쿠스쿠스가 프랑스 본토로 유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북아프리카 군인들과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쿠스쿠스는 프랑스 전역의 급식소와 식당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한 영양을 제공한다는 실용적 측면과 독특한 풍미가 결합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의 음식을 넘어 프랑스 중산층까지 즐기는 보편적인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전통 쿠스쿠스와 프랑스 현지화 쿠스쿠스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전통 쿠스쿠스는 주재료가 양고기, 닭고기, 채소 중심이지만 리옹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랑스 현지화 쿠스쿠스에서는 전통적인 양고기와 닭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포함한 세 종류의 육류가 모두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일 단백질원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육류를 선호하는 프랑스 식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향신료의 경우, 마그레브 전통 쿠스쿠스는 라스 엘 하누트(Ras el

Hanout)를 사용하여 복합적이고 강한 향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 현지화 쿠스쿠스에서는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춰 향신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으며, 대중화된 하리사(Harissa)소스를 별도로 곁들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전통 쿠스쿠스의 제공 방식은 커다란 그릇에 담아 여럿이 나누어 먹는 공동체 중심의 식사 구성이라면, 본 조사팀이 관찰한 프랑스 현지화 쿠스쿠스는 개별 접시가 제공되되, 프랑스식 식사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주민 음식이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의 기호와 조리 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문화적 수용'의 단계를 보여준다. 전통과 현지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프랑스식 쿠스쿠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례이다.



2-3) . 빌레르반(Villeurbanne) - 그라뜨 씨엘(Gratte-Ciel)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빌레르반은 리옹의 팽창과 함께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든 지역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20~30년대 당시 시장이었던 라자르 구베르네(Lazare Goujon)와 건축가 모리스 르루(Maurice Leroux)의 주도로 대규모 공공 주거 프로젝트인 '그라뜨 씨엘'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라뜨 씨엘(Gratte-Ciel, 마천루)은 당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고층 아파트 단지로, 현재의 현대적 아파트 구조와 매우 유사한 선구적 형태를 띠고 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계단식 테라스가 있다. 일조량과 환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갈수록 층이 좁아지는 계단식 설계를 채택했다. 이는 모든 가구가 평등하게 빛과 공기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이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창출했으며, 이는 이후 현대 아파트 건축의 표준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라뜨 씨엘의 건축 목적으로는 사회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주거 단지 중앙에 시청, 극장(TNP), 중앙 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중앙난방 시스템과 실내 화장실 등을 갖추어, 이주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컸다.

빌레르반은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 섞여 살며 독특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그라뜨 씨엘은 이러한 이주민들이 프랑스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 기반' 역할을 했다. 이 건축 단지는 건축이 어떻게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3. 마르세유

3-1) . 마르세유 구항구(Vieux-Port)

프랑스가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오랜 이민의 역사와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지중해 교역을 통한 인적, 문화적 교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르세유는 지중해 최대 항구 도시이자 이민의 관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프랑스 다문화 형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르세유 구항구를 프랑스의 다문화 국가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보고, 항구 도시의 역사와 이민의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르세유는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 포카이아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이다. 즉, 태생부터 '이주민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는 정체성이 구항구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19세기 이후 프랑스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편입하면서 마르세유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 마르세유는 식민지와 프랑스 본토를 연결하는 핵심 항구가 되었고, 식민지 출신 병사, 노동자, 상인들이 마르세유 항을 통해 프랑스로 들어왔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전후 재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알제리 독립 직후에는 알제리에 거주하던 유럽계 정착민인 '피에누아르(Pieds-Noirs)' 약 100만 명이 마르세유 항구를 통해 귀환하며 도시의 인구

지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북아프리카의 식문화와 관습을 프랑스 본토에 이식하며, 마르세유가 단순한 이주 도시를 넘어 복합적인 다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르세유 구항구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던 장소이다. 구항구는 오래전부터 상업과 어업, 여객선 운항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도시의 경제 활동을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을 첫 발 디딤터로 삼았다. 항구 주변에는 선원과 노동자를 위한 숙소, 식당, 시장이 형성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출신 집단이 섞여 사는 다문화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오늘날에도 구항구 일대에서 실제로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었고 여러 나라의 음식점과 상점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구항구가 단순한 교역의 장소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오늘날 '다문화 국가'로 인식되는 데에는 파리와 같은 수도권의 이민 집단만이 아니라, 마르세유와 같은 항구 도시의 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마르세유 구항구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인적 이동과 제국의 확장, 그리고 그에 따른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한눈에 응축해 보여 주는 공간이다. 따라서 마르세유 구항구에 대한 탐방과 관찰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프랑스가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3-2). 마르세유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Basilique Notre-Dame de la

Garde)



흔히 유럽의 성당이라고 하면 스테인드글라스와 섬세하게 조각된 마리아상,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둥 등 전형적인 고딕 양식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만남이 오고 가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위치한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에서는 기존 성당들과 다른 신비잔틴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신비잔틴 양식의 성당은 돔 구조, 아치형 공간 구성, 그리고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을 특징으로 하며,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밝은 색감과 장식성이 강조된다. 또한 서유럽보다 동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발전한 건축 양식으로, 이는 마르세유가 오랜 시간 지중해의 문화 교류의 장이었음을 증명한다.

나아가 19세기 후반 이후, 마르세유가 북아프리카, 남유럽, 중동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의 주요 정착지가 되고 이민자들이 항구 노동자, 상인, 선원으로 도시 경제를 지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민자들의 문화가 마르세유의 일상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 내부에 남아 있는 다양한 봉헌물들이 있다.



항구에서 일하는 직업이 대다수인 만큼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그들에게 수평선 끝에 솟아난 성당은 그들의 앞을 밝혀주는 수호신이자 등대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무거운 돈이나 금 조형물 대신 배 모형을 가져와 항해 중 사고가 생기지 않게 빌거나 죽은 동료들 기리는 등 염원을 비는 문화가 생겨 것이다. 이렇듯,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의지했던 장소였음을 드러낸다. 이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식처이자 도시를 내려다보는 수호의 공간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 성당은 과거의 이민 역사와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비잔틴 양식이라는 건축적 혼합성, 다양한 이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성,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진 다문화적 일상 모두 프랑스가 단일한 문화 국가가 아니라, 오랜 교류와 이동 속에서 형성된 사회임을 보여준다. 마르세유의 언덕 위에서 푸른 바다와 하얀 돛을 단 배들, 그리고 빨간 지붕이 돋보이는 낮은 건물들을 내려다보는 이 성당은 지금도 프랑스 다문화 사회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

를 잊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를 통해 알게된 점

본 연구를 통해 프랑스는 19세기 이후의 산업화.식민지 지배.세계대전.탈식민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구조적인 이민의 역사 위에 세워진 다문화 사회라는 점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 도시인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곳곳을 탐방하며 이민, 음식, 주거, 종교, 건축물 등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다문화 공존을 드러내는 상호 연결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쿠스쿠스와 메르게즈가 이주민들만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프랑스인의 일상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그라뜨 씨엘과 같은 공공주거가 이주 노동자의 정착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다문화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도시 공간과 생활양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임을 드러낸다. 또한 마르세유 구항구가 고대 그리스 이주에서 시작해 피에누아르 이주에 이르기까지 '이민의 관문'이자 문화 혼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 왔음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프랑스 다문화의 형성이 수도권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중해 항구 도시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2. 느낀 점 및 아쉬운 점

이번 탐방을 통해 프랑스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기억을 지닌 사람들이 부딪히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변화하였다. 책이나 강의로 접하던 다문화 개념을 넘어서, 도시 공간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으로써 다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항구, 시장, 음식, 종교 건축물과

같은 일상적 공간이 이민의 역사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동시에 이민의 역사 뒤에는 식민지배, 전쟁, 차별, 열악한 주거 환경 등 폭력적이고도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마주하면서, 다문화 공존을 이야기할 때 그 이면의 그늘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연구와 탐방 경험은 다문화를 역사, 공간, 사람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앞으로 다른 사회와 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에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본 탐방에서 아쉬웠던 점 하나는 빌레르반의 문화센터인 르리즈(Le Rize)를 방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르리즈는 이주와 기억,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한 전시와 기록을 통해 빌레르반의 다문화적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공간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탐방지였다. 그러나 방문 당시 난방 시설 고장으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었고, 그로 인해 직접적인 관람과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르리즈 방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리옹 및 빌레르반 지역의 이민사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구체적이고 풍부한 전시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아쉬움이 남는다.